

제 29호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지구마을

목 차

제 1장. 지리교육과 이모저모 -----	5
제 2장. 지리교육과를 소개합니다 -----	9
제 3장. 편집부가 전하는 학교생활 -----	21
제 4장. 지리교육과의 발자국 -----	39

제 1장. 지리교육과 이모저모

지구마을 29호를 펴내며 - 편집부장 김수진

2023년을 보내며 - 찬란 학회장 김교진

2024년, 우리의 길을 With U 개척하자 - With U 학회장 정용민



지구마을 29호를 펴내며

23년도 편집부장 21학번 김수진

안녕하세요. 지리교육과 편집부 편집부장을 맡은 21학번 김수진입니다. 2021년부터 편집부 활동을 시작하여 어느덧 2023년 지구마을 편집부장을 맡아 지구마을 29호를 제작하게 되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2022년은 코로나로 인해 비교적 제한된 활동 속에서 학과 생활을 지나 2023년은 학과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지구마을 29호에서는 보다 다양한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구마을은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학우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재학생분들에게는 해당 기간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활발한 학과 활동이 이루어져 답사, 지리 데이, 학과 행사 등을 진행하였던 해였습니다. 지구마을을 읽으시면서 24학번 신입생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재학생분들에게는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구마을 29호는 1학년 대구답사를 시작하여, 비슬산, 2학년 중부지역, 남부지역 답사, 3학년 도서지역, 해외지역 답사, 그리고 지리 데이 보고서 및 일지, 학과 전반적 소개, 졸업생 인터뷰 등 활성화되고 더욱 다채로워진 지구마을을 기대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편집부장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준 태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정현, 태현, 23(안) 지민,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해 준 22(편) 지민, 지은, 하나, 민재, 지영이까지 부원들 덕분에 29호 지구마을을 마무리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23년 부원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구마을 29호, 편집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지리교육과의 또 하나의 역사, 기록을 남길 24년 편집부를 위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 02. 01~2024. 01. 31 / 지리교육과 편집부 29호 지구마을 편집부장 21김수진 -

봄, 여름, 가을, 겨울

23년도 학생회장 21학번 김교진

개척지교! 지리교육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지리교육과 찬란 학생회 학생회장 21학번 김교진입니다. 우선 지구마을을 통해 학우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하얀 소의 해인 신축년에 입학하여 2022년도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을 지나고, 2023년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도 지나 어느덧 2024년도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학을 들어와 아무것도 몰라 우왕좌왕하는 신입생의 모습이었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이제는 4학년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1학년에는 대학 생활이 처음이라서 모든 게 신기하고 풋풋한 신입생 시절을 보냈고, 2학년에는 지리교육과 학생회 집부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장 선배를 따라 학생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차차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3학년에는 직접 지리교육과 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대표가 되어 앞에서 직접 학우분들을 이끌고 학우분들과 소통하면서 의견들을 수렴하여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했고, 학우분들이 즐겁고 더 나은 학과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학우분들께도 이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학생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부족했지만, 저를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조언을 해주셨던 학과장 오정준 교수님, 손명원 교수님, 이영아 교수님, 임석희 교수님과 조교 김준영 선배, 전 학생회 분들과 지리교육과 선배, 동기, 후배분들 그리고 올해 저와 같이 일한다고 고생한 학년별 과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부족한 학생회장 옆에서 도운다고 정말 고생한 제39대 찬란 학생회 수진, 태희, 채린, 주영, 정현, 지민, 수빈, 규리, 영민 선배, 태현이까지 모두가 열심히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열심히 잘해주었기 때문에 2월 임기를 시작으로 1월 마지막 임기 날까지 큰일 없이 잘 끝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 지리교육과를 새롭게 이끌어갈 새로운 With U 학생회에도 지리교육과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학생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지리교육과 학생회 학생회장으로서가 아닌 지리교육과 일반 학우로서 저의 마지막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내며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리교육과 학우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에는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2023. 02. 01~2024. 01. 31 / 지리교육과 찬란 학생회 학생회장 21김교진 -

2024년, 우리의 길을 With U(함께) 개척하자

24년도 학생회장 20학번 정용민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지리교육과 제40대 학생회장 20학번 정용민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내주신 만큼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고 지리교육과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이 부끄럽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20학번 동기들과 함께 지리교육과에 입학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저의 동기들이 졸업을 준비할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게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입학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마다 누군가 함께 있어 주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고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역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선만큼 제가 받았던 도움을 바탕으로 항상 많은 학우분들 옆에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40대 With U 학생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ith U 영어 단어에서 따온 말로, 항상 언제 어디서든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의 가장 큰 목표 역시 학우들과 함께 하는 지리교육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학우들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학우들과 함께 학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저를 위해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학우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으로 이 중요한 자리가 저에게 주어진 만큼 저는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행동하고 봉사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한 표가 후회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38대 정예지 학생회장님과 39대 김교진 학생회장님 그리고 지난 2023년을 찬란하게 빛내주신 39대 학생회 임원분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편집부 임원분들, 항상 저희를 위해 많은 힘을 써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024년 저와 함께할 With U 학생회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4학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장. 지리교육과를 소개합니다

지리교육과 교수님 소개

2023년 편집부 소개

2024년 학생회 소개

2023년 23학번 신입생 소개



지리교육과 교수님 소개



손명원 교수님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지형학 전공)
 담당과목 : 자연지리학, 기후학, 자연지리조사법, 자연지리 세미나 등
 관심분야 : 자연지리 전공(지형학) 습지 • 하천 생태
 경력 : 대한 지리학회 이사, 한국지형학회 이사



임석희 교수님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인문지리학 전공)
 담당과목 : 경제지리, 한국지리, 인구지리, 자원지리, 인문지리 세미나, 인문지리학 등
 관심분야 : 도시지리학 전공
 경력 : 대한지리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 위원



오정준 교수님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지리교육 전공)
 담당과목 : 지리학 입문, 문화지리, 관광지리, 지리교육론, 지리교재 연구 및 지도법
 관심분야 : 관광지리, 지리교육
 경력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편집부장, 대한 지리학회 홍보 이사



이영아 교수님

최종학력 : (영) UNIV. OF BRISTOL 철학박사 (사회정책학 전공)
 담당과목 : 사회지리, 도시지리, 세계지리, 지도학
 관심분야 : 인문지리 전공 / 사회지리, 도시재생
 경력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23년 편집부 소개



2024년 학생회 소개

부학생회장 -22학번 김규리

안녕하세요 이번 40대 학생회 부학생회장을 담당하게 된 22학번 김규리입니다!
올 한해 신입생 여러분들이 적응하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부장- 22학번 유수원

안녕하세요! With U 학생회 기획부장을 맡게 된 22학번 유수원입니다!
1년 동안 아무진 행사들로 20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차장-23학번 김민지

안녕하세요! 2024년 지리교육과 기획부 차장을 맡게 된 김민지입니다! 지리교육과 학우분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교육임용부장- 22학번 편지민

안녕하세요. 올해 교육임용부장을 맡게 된 편지민입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임용부차장-23학번 김지영

안녕하세요. 교육임용부 차장을 맡은 23학번 김지영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유용한 임용 정보를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부장 - 22학번 안수빈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부 부장을 맡은 22학번 안수빈입니다. 학우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차장-23학번 강윤주

안녕하세요. 문화체육부 차장을 맡게 된 강윤주입니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과를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부장-22학번 양유진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With U 학생회에서 총무부 부장을 맡게 된 22학번 양유진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은 만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 한해 잘 부탁드립니다.

총무차장- 23학번 이경진

안녕하세요 2024년 총무차장을 맡게 된 23학번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리교육과에서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부탁드려요!

홍보부원-23학번 유태현

안녕하세요! 홍보부원 유태현입니다. 학우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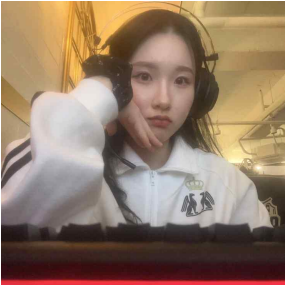
홍보부원-23학번 남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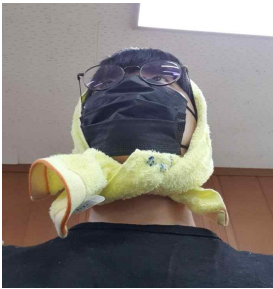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홍보부원 남하나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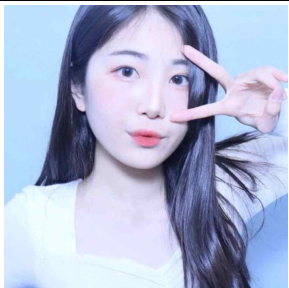
홍보부원-21학번 김태희

안녕하세요. 홍보부원 21학번 김태희입니다. 이번 한 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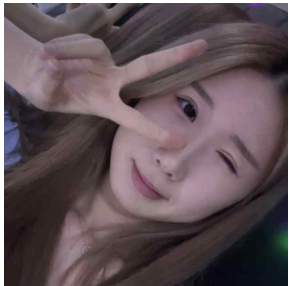
2023년 23학번 신입생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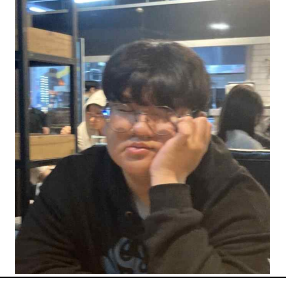
강윤주	양산 • 범어여자고등학교
	ESFJ의 인간화로 노는건 절대 빠지않으니 편하게 생각해 주고 언제든 yoonju_4925 디엠 환영 (〃'□`〃) 친해지고 싶다고 플러팅과 함께 다가오면 .. 나한테 간택 당해도 몰라 .. ◯_◯ (p.s. 저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면 아무것도 믿지마요)
고종우	서귀포 • 남주고등학교
	저는 집에 있는것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로 데시앙(장철훈네 집)에 출몰합니다 ㅎㅎ 많이 놀러 오세요.
김민지	울산 • 문수고등학교
	울산 고래 운전면허증 1급 소지 중 낮을 많이 가리고 즉흥적인.. 모순적인 ESTJ 먹는 것을 좋아하고 잠이 많음 좋아하는 건 탕후루, 딸기라떼, 스키타기!!
김성혁	포항 • 이동고등학교
	포항에서 온 김성혁 이라고 합니다. 포항항 웃지 않고 과메기 잘 먹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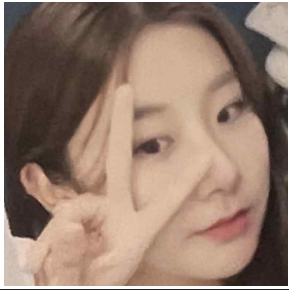
김예지	경주 • 경주에일고등학교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시에서 온 김예지 입니다! 경주 가실 일 있으시면 저에게 편하게 물어보세요(☹•u•☹)
김우승	김천 • 성의고등학교
	안녕하세요. 경북 김천에서 온 김우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과 노래 그리고 술을 좋아합니다.
김지영	강진 • 영암여자고등학교
	저는 사람을 디게디게 좋아하는 E지만 처음엔 엄청 낯을 가리고, 심각한 P 지만 계획세우는것을 재밌어하는 exxp입니당~!(๖~3~)๖
김태현	금산 • 금산고등학교
	인상이 차가워보인다고들 하더라고요. 대학 와서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저는 말이죠. 좀 무심하긴 하지만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친구들 얘기 듣는 거 좋아하구요. 친구들 싸움 구경하는 거 좋아합니다. 참 즐거워요. (๖~3~)๖ (๖~3~)๖
김하연	칠곡 • 경북외국어고등학교
	=>ENTJ 활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획적인 아이입니다 :D

남하나	통영 • 통영여자고등학교
	ISFJ. 초록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지교23에 몇 없는 내향인 밤새 롤토체스 할 사람 연락 주세요 *^^*
도혜련	울진 • 후포고등학교
	♪ 노는게 젤 조아 친구들 모여라 ♪ 나는 ISFP인데 F랑 T 반반이어서 종종 바껴 처음에는 낯가림 심한데 선택적 E여서 친해지면 재밌을거야 Lam_ru.or 앞에 L이니까 걸고싶으면 걸어 ㅎㅎ
박성호	청주 • 청주고등학교
	너, 내 동료가 돼라.
박예니	부산 • 동주여자고등학교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인, 부산에서 온 박예니 입니다 !! 매일 멋진 지리교사가 되기 위한노력과 동시에 축구를 정말 X100 좋아하는 ... (전북현대 팬 ㅎㅎ) INTP라 낯가림이 많이 .. 심하지만 먼저 다가와주시면 정말 좋아하고 반겨줍니당 *^_^*
박예찬	합천 • 합천고등학교
	합천 20년 토박이로 합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라서 제 발로 해인사를 간 적은 없습니다. 지리는 물론 축구, 야구, 게임, 음악 감상, 독서, 영화, 애니, 그외 등등 여러가지 주제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하지만 INFP라 능동적이지는 않음) 대학 생활동안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사진은 현실과 다를 수 있음)

박일홍	영동 • 영동고등학교
	안녕하세요~ 과일의 고장 충북 영동의 아들 박일홍입니다! 사람 만나는 거 매우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후배님들 환영해요옹
박정훈	시흥 • 매화고등학교
	야구와 게임과 수다에 미쳐사는 eNFP 노는건 언제나 환영이니까 연락주세요 인스타➡293839cfy
박준상	제주 • 한림고등학교
	저는 ufc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션스트릭랜드 선수 좋아합니다. 진정한 상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싱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데시앙A 사랑합니다.
손예원	포항 • 포항이동고등학교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E와가 반반인 ESFJ입니다!
송민재	창원 • 용호고등학교
	자칭 대구대 최고 소심이 + 술찌 영화랑 야구 보는거 좋아합니다 ! NC 화이팅 !

송이채	부여 • 부여여자고등학교
	안녕하세요 . 저는 부여 지리 일쌍 송이채임ㄴ ㅣ ㄷ ㅏ . ㄴnㄴnㄴ
신민준	울산 • 대송고등학교
	자타공인 비운의 천재, 못하는게 없다. 과연 그가 못하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걸까? 엠비티아이는 ISTP로 상당히 내성적이며 다소 현실적이다. 공감, 위로따위 바랄거면 차라리 무생물을 찾아가시길 ㅎㅎ
안지민	제주 • 세화고등학교
	활발한게 장점이고 말 많음 ㅎㅎ 대구대 지교 화이팅!!
안지은	창원 • 칠원고등학교
	ISTJ 맨날 계획만 짜고 지키진 않는 게으른 j 어찌구 소맥 타는 거 좋아하는데 아무도 맛있다고 안 해줘요 맛보실 분 연락 주세요 달려감미ㄷㅏ ｡ ˆ ˆ ｡ ʘ~>
유태현	옥천 • 옥천고등학교
	경기도 안산에서 1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5년을 살아온 경기도 사람이면서 충청도 사람인 유태현입니다^^ 술은 좋아하지 않지만 찾아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mbti는 ESTP고 말 걸고 관심 가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지교 최고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고 응애태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ㅎㅎ 학교에서 마주친다면 친근하게 말 걸어주세요~

이경진	속초 • 속초여자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제 엠비티아이는 entp인데 소문자 e여서 낮가려요ㅜㅜ 그러니까 편하게 다가와주세요 ㅎㅎ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강원도에서 온 사람은 새내기 중에서 저 뿐이니까 혹시 그쪽에서 오신 분은 먼저 말 걸어쥬깁니다~
이길호	인천 • 인제고등학교
	마계에서 온 지교 23학번 대표 오타쿠 여러분이 이 글 볼때 쫘이면 군대에 있을 예정.....2년 뒤에 봅시다 ^^b
이재은	경산 • 경산여자고등학교
	Mbti는 intp입니다 다가와주면 금방 친해집니다. 교회 다녀요. 사람은 적게 만나는거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구웁 b
이창현	청주 • 충북고등학교
	청주에서 온 이창현이라고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훈	울산 • 학성고등학교
	울산의 자랑 학성고등학교 출신이며 집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주로 피씨방에서 출몰한다.

전나영	상주 • 상주여자고등학교
	안녕하십니까 :) 대구대 지리교육과 23학번 전나영입니다 저는 활발하고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 저랑 예카가요 ○ㄷ○ !!!
정은정	대구 • 대구동부고등학교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정은정입니다 매일 편도 1시간 통학하구요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집순이랍니다 다들 빠이팅~♥
조민겸	수원 • 숙지고등학교
	축구 좋아합니다.
하동연	대구 • 동문고등학교
	꿀꿀 ~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 돼지입니다. 그덕에 4년째 닭가슴살 모으는 것이 취미이자 4년째 다이어트 중인 것이 특징입니다. 백종원 선생님께 인정 받을 정도로 요리 잘합니다. 아마 드시면 하나씩 사라지는 게 아쉬울 정도 ^^ 쥘카 닭아서 대구에 출몰하면 tv방송 및 기사와 실검에 오르는 폭발적인 인기에 적응하는 저일 가능성이...!
황시우	거제 • 연초고등학교
	10년동안 파주에서 살다가 지금은 거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건 축구, 야구, 음악, 호날두

제 3장. 편집부가 전하는 학교생활

지리교육과 1년 다이어리

졸업생 인터뷰 - 송주연, 이소영 교수님



DU 개척지교
365DAY
Diary
DU 개척지교의 1년



2월

2월 23일 - 신입생 입학식

3월

3월 2일 ~ 3월 8일 - 지리교육과 신입생 DU 환영

3월 7일 - 지리교육과 1학기 개강 총회

3월 14일, 29일 - 역일지 스포츠 교류

4월

4월 6일 - 사범대학 출범식

4월 28일 1학년 답사

5월

5월 23일 ~ 25일 - 2,3학년 답사 (2학년 중부지역, 3학년 제주도)

6월

6월 5일 - 지리교육과 1학기 종강총회





7-8월

9월

9월 5일 ~ 9월 7일 - 지리교육과 E스포츠 대회

9월 14일 - 지리교육과 2학기 개강총회

9월 19일 ~ 9월 21일 - 2학년 남부지역 답사

9월 19일 ~ 9월 22일 - 3학년 해외지역 일본 답사

9월 26일 - 사범대학 체육대회

10월

10월 24일 - 지리교육과 지리 골든벨

11월

11월 1일 ~ 14일 - 지리교육과 심자말풀이

11월 16일 - 역일지 문화교류 역일지의 밤

11월 28일 ~ 11월 29일 - 지리교육과 지리데이 및 종강총회

12월



3 월



3월 2일 ~ 3월 8일
지리교육과 신입생 DU 환영회



3월 7일
지리교육과 1학기 개강총회



3월 14일, 29일
역일지 스포츠 교류

4 월



4월 6일
사범대학 출범식

5 월



5월 23 - 25일
2학년 답사 (충부지역)



5월 23 - 25일
3학년 답사 (제주도)





6월 5일 지리교육과 종강총회

7-8월

2023 여름방학

8월 28일 - 2학기 개강

9월



9월 5일 ~ 9월 7일
지리교육과 E스포츠 대회



9월 14일
지리교육과 개강총회



9월 19일 ~ 9월 21일
2학년 남부지역 답사



9월 19일 ~ 9월 22일
3학년 해외지역 일본답사



9월 26일
사범대학 체육대회



10월



10월 24일
지리골든벨

11월



11월 1일 ~ 11월 14일
지리교육과 십자말풀



11월 16일
역일지 교류행사 역일지의 밤



11월 28일 ~ 11월 29일
2023 지리교육과 지리데이





12월

12월 8일 2학기 종강

겨울방학



졸업생 인터뷰 - 송주연 교수님

Q :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대구대 지리교육과 01학번 송주연입니다.

저는 학부 때 수강한 도시지리학이 너무 흥미로워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학부 졸업 후 임석회 교수님의 지도 아래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도시내부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공간변화: 대구 제3산업단지를 사례로”이며,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의 도시성장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고, 대구대와 전남대, 전북대 지리교육과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의 편당을 받아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 대구대 지리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고등학교에서도 지리과목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리 선생님의 수업도 재미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경관과 인문지리 현상들을 다루는 지리 수업이 좋았습니다. 대학 진학 당시 자연스레 지리교육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당시 여러 선생님들이 대구대 지리교육과의 높은 임용 합격율과 사범대의 우수한 커리큘럼을 들려주었습니다. 고민없이 대구대 지리교육과를 먼저 지원하였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Q :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지리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지리적 위치나 지표상의 현상을 정보화한 공간정보(geospatial information)는 지리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컴퓨터 가상공간에 현실 속 사물을 마치 쌍둥이와 같이 그대로 구현해내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국토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형을 비롯한 건물과 도로 등 다양한 현실사상들이 복제되어 만들어진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5G 통신 및 사물인터넷과 연동된 방대한 데이터, 3차원 모델링,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되어 행정서비스와 스마트 재난관리, 기후관련 정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행정활용모델 예>

강원 속초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 관광 도시 구현)

봄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예측모델 개발 및 겨울에 발생하는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 시뮬레이션 개발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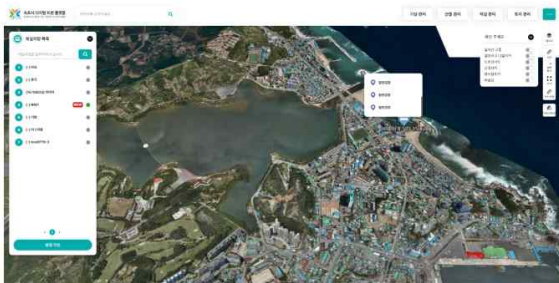
행정활용모델 ①

산불피해 예방을 위한 예측모델: 바람길 시뮬레이션을 연계한 산불확산분석 및 모바일 기반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 및 지휘 통제 기능



행정활용모델 ②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시시설관리 예측모델: 제설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과 폭설에 따른 적설량 및 위험지역 제설 차량 운영 의사결정 지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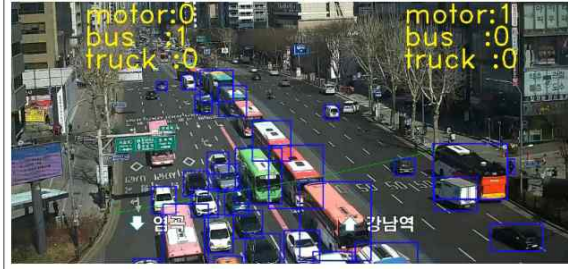


서울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지원모델 개발)

통신정보 이동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통 수요예측, 신호 최적화 등 시뮬레이션 구현하고,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행정 업무에 활용

행정활용모델 ①

교통영향평가 지원모델: 모바일 데이터를 실시간 교통량으로 가공하여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예측 및 CCTV 영상 기반 차종별 교통량 제공



행정활용모델 ②

교통 시뮬레이션 모델: SUMO를 활용하여 교통량 조희, 대중교통 정보 제공, 용도별 유입량 정보 제공, 교통안전시설물 정보 조희 시뮬레이션 구현



자료: 2023 공간정보 겨울호, p.59, p.61

위의 디지털 트윈 행정활용모델과 같이 디지털 트윈 국토가 구축되면 국토의 실제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으로 얻어진 가상 데이터가 융합되면서 국토 관련 이해 당사자에게 단순한 정보 지식을 넘어서는 문제 해결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데이터의 다양한 결합을 만들어내면서 유용한 빅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별 지자체와 기관들의 디지털 트윈 성과를 통합하여 디지털 트윈 국토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간정보연구원, 2023 공간정보 겨울호

LX 한국국토정보공사, 2021. 04. 디지털 트윈국토 리포트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국토 데이터 및 활용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산 자료

Q : 대구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학과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대학 과정의 종착지로 생각하고 매진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시간배분을 잘 하고 활용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용이 아닌 지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탐구, 글쓰기와 독서, 외국어, 코딩, 타 대학과의 교류, 교환학생, 봉사활동, 리빙랩, 동아리 활동 등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여 내면의 풍성함을 함께 채우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과 활동은 후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 넓은 시각을 길러주고, 협업과 조직 문화에도 성숙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Q :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도 있지만 주로 하는 일은 연구활동을 통해 학술논문을 작성하고,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2021년부터 5년 간 진행하게 된 "한국 산업지역의 재구조화와 지역노동시장 변화"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지역이 제조업 쇠퇴 후 재구조화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변화, 또는 국지적으로 지역화 경제를 이루는 제조업공간의 생태계 양상 등 한국 곳곳에서 목도되는 산업지리적인 특성을 탐색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다음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제조업 위기지역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 변화: 군산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3), 299-319.

2023년: 거제시 지역노동시장의 일자리 변동과 조정: 조선업 위기와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8(3), 252-273.

2023년: 한국 농공단지의 생산효율성과 지역적 특성 분석: DEA 모형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7(4), 569-585.

다음 논문은 임석희 교수님과 공동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논문의 틀을 구상하기 위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주제는 위기에 대한 지역 회복력(resilience)과 산업구조에 관한 것으로 임석희 교수님과의 공동연구가 많이 기대됩니다.



Q : 교사가 아닌 현재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 도시지리학에 흥미를 느껴 막연히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은 방대한 양의 논문을 읽게 했고, 원서 내용을 접하게 했고, 과제로 논문 형태의 글을 써보게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과 교수님들의 열정도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부 때 듣는 위주의 수업에 익숙했던 탓에 스스로 준비하는 대학원 수업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용과 지식들이 마치 매일 저를 새롭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학원실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자연스레 연구자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고 대구대 지리교육과에서 박사학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원한다면 관심있는 주제를 연구라는 도구를 통해 탐색하고 논문의 형태로 정제해서 출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배로서 좋은 연구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지리 교사가 아닌 다른 지리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 지리 교사가 되든 다른 진로를 희망하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은 기본에 충실히 임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라는 과목 특성 상 접목될 수 있는 취업군은 다양합니다. 정해진 지리 교과 커리큘럼을 충실히 들으시면서 진로를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 다른 직업활동을 하는 선배님에게 조언을 구하고, 교수님께 충분히 상의를 드리면 다른 진로도 구체화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정보 상태에서 목표를 정하고 가기보다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그 안에서 원하는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뚜렷해질 수도 있습니다.

졸업생 인터뷰 - 이소영 교수님

Q :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05학번 이소영입니다. 저는 학부 졸업 후 대구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지리교육에 대해 공부하였구요.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지금은 졸업 후 여러 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다양한 연구를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Q : 대구대 지리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사실 학창시절에 지리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새롭게 부임하셨고, 저는 지리의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리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리'과목을 '지리'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Q : 최근 가장 화두가 되는 지리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최근 화두가 되는 지리 이슈는 아무래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및 적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래 표와 같이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합사회는 1,2로 분리되었고, 신설된 과목도 있습니다(도시의 미래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고교학점제 도입에 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까지 앞두고 있어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분 (과목)	2015	2022
공통과목	통합사회	통합사회1 통합사회2
일반선택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시민과지리
진로선택	여행지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융합선택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Q : 추천해주고 싶은 지리 도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저는 『지도와 거짓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도와 거짓말'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 지도로 나타내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왜곡들, 그리고 그러한 왜곡들이 교묘하게 활용되는 사례들, 즉 지도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도의 본질과 지도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도를 접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 지리 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우선, 무엇보다도 교사 본연의 역할에 맞게 수업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 학생들의 삶과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듬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대구대 지리교육과의 장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대구대 지리교육과의 최대 장점은 우수한 교수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구대 지리교육과의 교수님들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학부과정 동안 지리학 전반에 대해 탄탄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과뿐만 아니라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자체에서도 임용시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대구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 학교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경험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학창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혜택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의 참여가 어렵다면, 교내에서 열리는 특강들, CTL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공동체(Learning SIG+)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공 스터디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본인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모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수상을 하게 되면 추후에 여러 분들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학부생일 때는 선정이 되면 해외 답사를 보내주는 '해외문화탐방' 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런 좋은 기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저는 많이 후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Q :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장사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지금은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GIS 등을 활용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AI, 지리공간기술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지리교육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울러, 여러 대학에서 지리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가톨릭관동대, 건국대, 서울대 등). 아래 사진은 학교에서 GIS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



Q : 현재의 지리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 무엇보다도 특정 지리적 현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특히, 저는 탐색적 공간 데이터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ESDA란, 다양한 과학적-지도학적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패턴 및 결과를 발견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공간 데이터 탐색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공간적 현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예기치 못했던 유의미한 현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Q : 교사가 아닌 현재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 처음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리 교사의 꿈을 가지고 지리교육과에 입학한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연구에 흥미가 생겨 지금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 지리는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치열하게 고민해 본 후, 교사에 대한 꿈이 확실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임용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저는 응원할 것입니다.

Q :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일단, 앞서 밝힌 것처럼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체화되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현장 교사의 손을 거쳐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따라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지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 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지금 지리학인가(Why Geography Matters)'저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리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리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학생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이슈에 대하여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이 지리를 유용하고 흥미로운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리 과목의 선택률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4장. 지리교육과의 발자국

1학기 비슬산 답사 보고 - 23박예니

1학기 중부지역 답사 보고 - 22김규리

2학기 해외지역 일본 답사 일지 - 21김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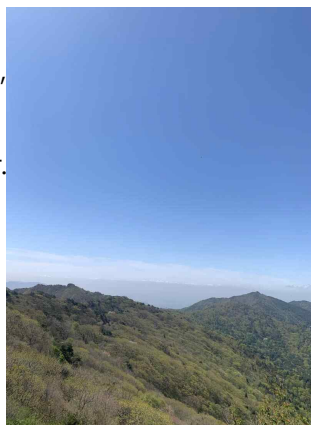
23년도 지리데이 소감문 - 23김태현



1학년 비슬산 답사보고

23 박예니

지리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기대하고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답사'이다. 내 눈앞에는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가득할 만큼, '답사' 또한 나의 부푼 기대를 가득 담았다. 인문지리 답사인 대구 시내를 시작으로 답사를 해보기도 하고, 자연지리 답사로 비슬산 답사를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한 답사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비슬산 답사'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먼저 비슬산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 양리 산'에 위치한 산으로 산 정상에 바위 모양이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비슬'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비슬'이라는 이름을 듣고, 정말 귀여운 이름이 붙여진 산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비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天王峰:1083.4m)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슬산이 귀엽다는 생각이 잠시 멈춰졌다. 교수님께서 자연지리 답사를 비슬산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다. 직접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엄청난 체력 소모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답사는 걷고 뛰어다니면서 직접 지형이나 형태를 관찰하는 맛으로 답사의 맛을 깨닫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쯤, 등산은 버스로 이동하고, 하산은 직접 내려간다는 소식에 산을 생각이 들었는데, 답사는 걷고 뛰어다니면서 직접 지형이나 형태를 관찰하는 맛으로 답사의 맛을 깨닫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쯤, 등산은 버스로 이동하고, 하산은 직접 내려간다는 소식에 산을 올라갈 때의 힘을 아껴서 하산할 때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슬산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완전한 정상은 몇 십분의 도보로 직접 올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순간만큼은, 기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버스로 등산을 하였음에도, 나의 발걸음으로 직접 올라산으로 둘러싸인 멋진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기들과 산 정상에 도달한 채 점심 식사를 함께하니 마치 나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현장체험학습을 온 느낌 같아서 하나의 대학교 추억을 쌓은 느낌이었다. 비슬산 정상을 다 둘러본 채 하산을 하는 시간이 되어 하산을 하는데, 하산은 내려가는 내내 힘들기보다 다칠까 봐 두려움이 컸다. 왜냐하면, 주변 동기들이 내려가는 길에 작은 돌에 발이 걸려 다칠 뻔하거나 다치는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다치는 동기들과 내가 다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반창고나 바를 수 있는 약을 따로 챙겨다녀서, 동기들과 나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도 없는 너털강이 웅장함이 가득한 분위기로 나를 압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카메라를 키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답사할 순간들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카메라로 내가 담고 싶은 순간들을 작은 렌즈로 하나하나 담고 싶다. 물론 카메라가 아닌 나의 눈에도 오랫동안 그 풍경을 담을 것이다.



2학년 중부지역 답사보고

22 김규리

한 학기에 한 번 답사를 갔을 때에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답사하는데 왜 읍성에 가는 거지. 오히려 지리보다는 역사와 더 관련있는 분야가 아닌가?'라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중부지역 답사를 다녀오며 읍성경관이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과 답사를 다녀온 과정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역의 이해 강의를 들으며 답사로 향하게 된 곳은 충청도였습니다. 가장 먼저 단양에 있는 도담삼봉에 갔습니다. 도담삼봉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들어낸 원추 모양의 봉우리로 남한강이 휘돌아 이룬 깊은 못에 크고 높은 장군봉을 중심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그 형상이 기이하고 아름다우며 남한강과 어우러져 뛰어난 절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곳은 조선시대 개국공신인 정도전 탄생에 관련한 설화가 전해 내려져 오는데 정도전은 자신을 삼봉이라 자호할 정도로 이곳을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절경이 특이하고 아름다워 단양 팔경 중 으뜸으로 손 꼽히며 단양 군수를 지낸 이황을 비롯하여 김정희, 김홍도 등이 많은 시와 그림을 남긴 곳이라고 전해집니다.¹⁾ 저는 이곳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 오랫동안 감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저와 같이 감상하고 있던 관광객이 많이 없어서 도담삼봉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1) 명승 단양 도담삼봉. n.d.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sessionId=5sNHZU8tzt00JmbWPDbyJHtbayw8NxnoswTxsmIKeCT0PrYmnc4XTVi694l1b8z8.cpawas2_servlet_engine1?pageNo=1_1_2_0&ccbaCpno=1353300440000

둘째 날 갔던 답사 장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서산에 위치한 해미읍성입니다. '김밥에 해미읍성'이라며 동기들과 농담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해미읍성은 고려 말부터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서 왜구가 해안지방에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태종과 세종 사이에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을 이곳에 옮기고자 축성하게 되었습니다.²⁾ 규모가 무척이나 크고 넓어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해미읍성 안에는 투호 등 갖은 민속놀이 체험장소도 마련해 두어서 관광객이 붐볐습니다. 성곽 안에 있던 경관의 규모에 놀라서 인상 깊었지만, 저는 읍성 밖에서 성벽을 보는 것이 더욱 인상 깊었는데, 답사갔던 시점이 석가탄신일이어서 불교 등불이 장식되어 있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보였습니다.



저는 항상 답사하면서 읍성을 다닌다는 것이 지리 답사와 무슨 관련이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계속 읍성을 관찰하고 문화 지리학에서 특정 문화 집단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재현해 내고 상징화하는, 그래서 독특한 의미를 담아 재생산되는 문화적 이미지이자 텍스트임의 재현지리학에서도, 읍성의 위치나 형태로 보았을 때 도시지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며 읍성 경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읍성과 읍치는 당대의 지방 통치, 경제생활, 문화예술을 함축한 다양한 경관 요소와 장소들로 채워진 전통 도시로서, 한반도 고유의 읍치 경관을 조형하였습니다. 읍성 경관은 지방에 대한 국가의 통치 전략과 당대의 지배적 관념 세계, 다양한 지역 환경에서 전개된 인간-자연 관계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도시경관이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읍성 경관은 일제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해체되었지만 잔존 경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읍치 경관의 완전성과 지역적 고유성을 도모한다면 세계유산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에 지리와 매우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³⁾ 그러면서 읍성을 답사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다음 답사로 읍성을 가게 될 경우 더욱 유심히 그 지역에 읍성에 대해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사적 서산 해미읍성. n.d. *문화재청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ulPageNo=1®ion=1&searchCondition=%ED%95%B4%EB%AF%B8%EC%9D%8D%EC%84%B1&searchCondition2=&ccbaKdcd=13&ccbaAsno=01160000&ccbaCtcd=34&ccbaCpno=1333401160000&ccbaCndt=&ccbaLcto=&stCcbaAsdt=&endCcbaAsdt=&header=view&returnUrl=%2Fheri%2Fcul%2FculSelectViewList.do&pageNo=1_1_1_0&p=multiSch&sortType=&sortOrd=&sngl=Y&s_kdcdArr=00&s_ctcdArr=00&ccbaPcd1Arr=99&ccbaGcodeArr=00

3) 전종한. (2020). 조선후기 한반도 읍치 경관의 지리적 함의와 세계유산 가치. *대한지리학회*, 55(5), 485~500

3학년 일본 답사일지

21 김주영

지리교육과 3학년 학생들은 10월19일~10월22일까지 일본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몇 년 동안 시행되지 않던 해외 답사가 우리 학년이 갈 때 재개돼서 더 좋았었다. 나는 일본은 한 번도 안 가봤었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다.

1일 차

이번 일본답사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우리는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저녁에 출발해 다음 날 아침 일본에 도착하는 뉴 카멜리아라는 배를 타고 일본 후쿠오카로 이동했다. 저녁 6시쯤 배에 탑승해야 했기 때문에 미리 부산으로 이동해 터미널에서 밥을 먹고 탑승했다. 이때 터미널에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각자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멀리 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 오기도 했었다.

배에 8시쯤 탑승했고 배정된 방으로 가서 짐을 풀었다. 우리는 10명 정도가 넓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다인실을 사용했다. 혹시 자는 게 불편할까 봐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편했고 선배들이 재밌어서 즐거웠었다. 우리가 타고 가는 배에는 목욕탕도 있고 오락실, 노래방, 식당, 매점이 있었다. 게임장이나 노래방에서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목욕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면서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배가 출항하는 10시 반에는 주변이 어두워 부산항의 야경과 부산항 대교의 조명이 멋있었다. 여러 사람이 갑판으로 나와 바다와 부산항과 다리를 보고 답사 시작의 기분을 만끽했다. 나는 주변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먼바다로 갈 때까지 몇몇 친구, 선배들이랑 갑판에서 이야기하고 놀았다. 나는 너무 늦게 자면 다음 날 일정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찍 누워서 잤다. 파도가 엄청 잔잔해서 배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자는 데도 무리가 없었다. 각자 더 놀기도 하고 일찍 자기도 하면서 배 위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2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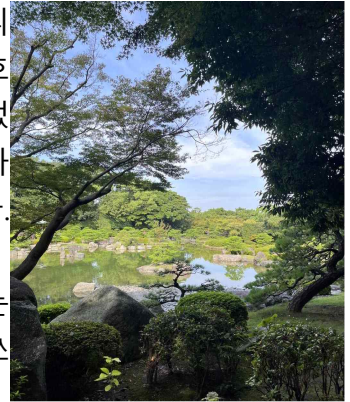
다음날 일어나보니 배가 후쿠오카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씻고 식당으로 가 아침을 먹고 조금 기다려서 배에서 내렸다. 첫 일본의 모습은 한국과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듯 한 느낌이었다. 입국 수속을 간단하게 마친 후 기다리고 계시던 가이드님을 만났다. 버스에 짐을 싣고 첫 목적지로 출발했다.

우리는 일본 큐슈 지역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가이드님이 큐슈는 한국의 전라도와 비슷한 이미지라고 하셨다. 실제로 처음 만난 큐슈는 도시적 경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동할수록 농촌과 자연경관이 많았다. 첫 일정은 후쿠오카 오토리 공원이었다. 사실 너무 더워서 버스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수 없으니 내려서 교수님을 따라갔다. 오토리 공원은 가운데 큰 호수가 있고 주변은 산책할 수 있게 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엄청 넓은 공원이었는데 현지 사람



들은 출퇴근이나 등하교할 때 공원을 지나간다고 한다.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 운치 있는 공원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히려 공원 안에 있는 일본 정원도 갔었는데 생각보다 예쁘고 운치 있었다. 그리고 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정원을 보면 나라별로 자연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다. 설명을 듣고 보니 정원의 형태나 배치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

다음 답사 장소는 히라오다이 자연공원이었었는데 저 멀리 라피에라는 지형이 있었다는 것과 경치가 좋았다는 기억밖에 나지 않아 짧게 쓰고 넘어가야겠다.



다음 답사 장소는 가마도 지옥이라는 온천지대였다. 처음엔 족욕을 하러 간다길래 답사를 와서 굳이 족욕을? 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것을 보고 얻어서 돌아간 장소였다. 들어가자마자 울타리 안으로 온천수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흥미로웠고 좀 더 들어가자 큰 온천지대가 나왔다. 물이 아주 뜨거워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아저씨께서 온천수에 정체 모를 바람을 쐬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만들어 내셨다. 그러고는 한국어로 "기똥차네~", "신기하네~", "기가 막히네" 같은 추임새를 넣으시면서 우리를 웃겨주셨다. 더운 날씨에 온천 가까이서 일하시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이후에 족욕도 하고 온천 사이다와 온센타마고도 먹으면서 지옥에서 힐링하고 나왔다.

첫날의 마지막 코스는 유후인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기념품이나 공예품 등을 파는 작은 마을이었다. 먼저 마을 근처의 호수로 가서 사진을 찍은 다음 각자 마을을 구경하고 기념품을 사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뛰어다니면서 기념품을 샀다. 미련이 많이 남았지만 못 가본 많은 상점들을 뒤로하고 버스에 탔다.

이후에는 호텔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호텔 뷔페를 먹었는데 메뉴에 게가 있었다. 선배들이 노 재팬을 해야 하는데, 일본에 와서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경제보복을 하기 위해 그나마 비싼 게를 다 먹어 치우겠다고 하셨다. 그러고는 게를 산처럼 쌓아와서 열심히 드시더니 갑자기 배가 불러서 경제보복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며 애국심을 잠시 접어두셨다. 선배들이 그러고 노는 게 웃겨서 한참 구경하면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 그 뒤로는 각자 호텔에 있는 온천도 가고 바로 옆의 마트나 편의점에서 쇼핑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호텔 바로 옆에는 코스모스라는 대형 마트가 있었는데 처음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 방황하다가 검색과 번역기를 사용해서 열심히 쇼핑했다. 그리고 친구와 선배들과 편의점에서 사 온 간식들을 같이 먹고 이야기하다가 3시가 넘어서 잤다.

3일 차

아침에 호텔 조식을 간단하게 먹고 버스에 올랐다. 이날 아소산에 갈 예정이었는데 아침부터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가이드분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

첫 일정은 구마모토성이었다. 구마모토성은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이자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가토 기요마사의 성이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비가 쏟아지더니 올라가는 길에는 폭우가 내렸다. 나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친구 우산

을 살 겸 상점에 뛰어갔다가 따라갔는데 우산을 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쫄딱 젖어있었다. 비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성이 너무 멋있었고 성안에도 볼 것들이 많았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기념품 샵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소산으로 향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소산 정상의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우리는 아소산 중턱에서 밥을 먹고 내려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냥 내려가기는 아쉬워서 아소산 대관봉에 들렀다. 그런데 여기가 답사에서 가장 예쁘고 기억에 남는 장소였다. 대관봉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변 경치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멋있었고 대관봉에서 보는 주변 지형은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인생샷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여기서 찍은 사진으로 내가 답사 사진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이 답사일지를 쓰게 되었다.

정상에 올라가지 못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소신사를 다녀왔다. 공사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스러운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자유시간을 가졌다. 전날에 봐둔 물건들을 코스모스에 가서 쓸어 담고 편의점도 털어왔다.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는 선배들과 탁구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다가 잤다.



4일 차

이날은 아쉽게도 한 곳에만 들러 둘러본 뒤 바로 배를 타러 갔다.

그렇게 간 곳은 태재부 천안궁이라는 곳이었는데 어떤 학자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곳이었다.

규모가 엄청 크고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다. 일본도 신이나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숭배하고 소원을 비는 문화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태재부 앞에 있는 커다란 녹나무를 구경하고 버스로 돌아왔다.

우리는 배에 탑승하기 전 면세점을 다니며 마지막으로 쇼핑했다. 그러고는 배에 타서 출발하던 날처럼 시간을 보냈다. 답사가 끝났다는 것이 아쉬우면서도 사 온 것들을 먹고 주변에 나눠줄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적자면 처음 일본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돌아와서 꼭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배로 다녀온 것도 재미있었고 학과 사람들이랑 답사를 즐겼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분량도 한정적이고 글 솜씨도 좋지 못해서 답사가 별로였나 싶을 수 있지만 너무 좋았고 후배들도 꼭 해외 답사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리데이 소감문

23 김태현



저희는 11월 28일, 11월 29일 지리 데이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늘 기대한 지리 데이였기에 출발하기 전날부터 상당히 설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당일 치기 답사가 아니라 1박 2일의 답사였으며 동기들뿐만 아닌 선배님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답사라는 점에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해주시는 지리 데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마음으로 답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 데이의 답사 장소들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초계 분지와 정양늪 생태공원, 여수 등을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지리 데이 답사를 출발하기에 앞서 저희는 지리 데이조를 배정받고 지리 데이 조별 활동과 미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위에 학번 선배님들과 같은조를 이루어 활동하는 것이기도 했고 초면이 선배님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러한 긴장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사라져버렸고 너무나도 재밌게 버스 미션을 한 덕분에 조금은 오래 걸린다고 느껴졌던 버스 안에서의 시간은 정말 잘 흘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첫 번째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답사 장소는 합천군에 위치한 초계 분지였습니다.

분지는 해발 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그 모습을 사진이 아닌 실제로 그것도 제대로 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장소로는 합천군에 위치한 정양늪 생태공원입니다.

이 역시 늪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생태공원이었는지라 볼거리 역시 많았습니다.

사진으로는 잘 담기지 않은 것 같지만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답사지를 보고 난 뒤 여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돌문어 삼합 라면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여수 바다와 하멜 등대를 보며 여수의 매력에 조금씩 잠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리 데이 답사지를 구경함과 동시에 조별 활동과 미션 등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학생회에서 준비해 주신 퀴즈를 풀어 점수를 얻는 활동을 했고 조끼리 릴스를 찍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단연코 별에서 온 그대라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활동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별도 만들기도 했죠. 결국은 찾아냈습니다만 참 험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활동 후 숙소에서 들어와 특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의 교수님으로 일해주시고 계신 선배님들의 특강과 이제는 교사가 되신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선배님들의 이야기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특강이 지리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지리교육과의 종강 총회와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선배님들의 감사발표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멋있게 느껴졌고 지리교육과의 감사활동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강 총회를 하며 2023년 지리교육과의 활동을 총정리를 하였는데 정말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날 여수시에 위치한 무슬목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에 오면 즐겁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해 바다를 보는데 정말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감사에서 평화로움은 뭔가 이질감이 들어서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은 저기에 빠지면 재밌을 것 같다는 조금은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바로 접었습니다. 둥근 돌이 상당히 많았던 해수욕장이었기 때문에 돌탐도 쏘아보고 납작한 돌을 찾아 물수제비도 해봤습니다. 바다에 오면 즐겁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수 엑스포 공원을 끝으로 다시 학교에 가는 버스에 오르며 지리 데이라는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 데이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있다면 역시 답사는 너무나도 재밌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이 많아서 더욱 재밌었다.입니다. 지리교육과의 꽃은 답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은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리 데이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같은 목표를 가진 많은 분들과 무엇인가를 함께한다는 것에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리교육과에서의 첫 학년을 지리 데이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뜻깊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 후기 -

21학번 이태희

먼저 1년 동안 수고해 준 편집부장과 편집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서 여러 활동을 통해 같이 작업도 할 수 있고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마을을 통해 학우분들에게 학과생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22학번 권정현

올해 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선후배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지리교육과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었고, 모든 활동이 의미 있었습니다! 즐거운 학과 생활을 하고 싶다면 편집부에 꼭 들어오시길 추천합니다!

22학번 편지민

작년에 이어서 학우들을 위해 직접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학번 김지영

대학교에서 첫 동아리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 고민하다 과 동아리 편집부에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들어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배님, 동기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재미있었고, 뿌듯함도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조별로 진행한 지리 답사로 갔던 팔공산은 추운 날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같이 수다 떨며 재미있게 등산했던 잊을 수 없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랑의 우체통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면서 학우분들이 다들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더 힘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편집부에서 더 다양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23학번 남하나

편집부 활동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편집부 답사도 가보는 등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23학번 송민재

대학교에 들어와서 편집부 활동을 하며 과 선배님, 동기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과에 들어와서 지구마을을 보고 과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만큼 신입생분들도 지구마을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학번 안지은

지구마을을 편찬하는데 기여하며 지리교육과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23학번 신입생 소개'를 통해 같은 학번 친구들에 대해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23학번 유태현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활동들을 진행하고 또 참여하면서 점차 동아리 부원분들과 친해지고 행사도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재밌고 좋았습니다. 특히 사랑의 우체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실제로 이 활동을 통해서 학과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친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편집부 짱!

